

# 신앙과 학문의 통합: 통합의 가교로서의 기독교세계관.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Christian Worldview as a Bridge of Integration.

강상우(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 박사과정수료)

## 요약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신앙과 학문의 관계는 통합의 관계에 있었지만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의 영향으로 신앙과 학문은 분리되었다. 신앙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는데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신앙과 학문의 틈을 더욱 더 넓혔다. 주류 학문은 신앙과 학문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지만(외형적으로는), 기독교연구자라면 주류 학문의 경향과 달리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듯 학문의 영역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신앙과 학문의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먼저 모든 학문에는 ‘숨겨진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숨겨진 가치는 본질적으로 종교적 가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통합(또는 통섭)의 바람이 학계에 불었는데, 통합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이 통합을 추구할 때 통합을 추구하는 연구자 자신의 가치(세계관)에 중심을 둔 통합을 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앙에 기반을 둔 학문’, 즉 ‘세계관에 기반을 둔 학문’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을 교량으로”하여 통합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통합에 있어서 세계관은 가치기준으로 작용하고,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이론적 철학적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세계관이 전(前)이론적이기 때문에 신앙(연구자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이는 신학적·철학적 사고를 통해 통합의 대상이 되는 학문과 통합을 위한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신앙과 학문 간에 연계가 가능하게 된다.

## I 서론

1년 전에 학회에서 저는 기독교세계관이 A·R·T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상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필터링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의 영역에서 필터링(filtering)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세계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수용·거부·변형(A·R·T: assimilation, refusal, and transformation)의 역할을 하는데 기독교세계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受容)하게 되고,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변형(變形)을 한 후에 수용하게 되고, 기독교의 본질과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拒否)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ARTer, 또는 ARTor[artist와 비교해서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가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술을 하는 예술가(artist)들이 혼신을 다해서 예술 작업을 하는 것처럼 ART작업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야 하는 작업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강상우, 2011). 학회가 끝난 후 저는 A·R·T 과정에 앞서 순서상 신앙과 학문의 통합[작가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 크게는 신앙과 문화의 통합의 경우도 같은 원리일 것이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터링은 논리적으로 볼 때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과 학문(또는 문화 등)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A·R·T PROCESS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 기독교세계관이 “통합의 가교(架橋)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논구하고자 합니다[이는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에 기독교세계관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세계관 또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에 있어서 학문의 개념을 이성이나 과학 그리고 문화 등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이해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학문이 좁게는 이성(reason)이나 과학(science)으로도 표현되어지기도 하며, 문화(culture)라는 큰 개념 속에 포함되어지는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은 학문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문화의 전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또 적용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이장현, 2007: 31 참조).

본 연구는 대부분 선행 연구에 많은 것들을 기대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단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모자이크적 종합”(mosaic colligation)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특히 신앙과 학문의 대한 『통합연구』(신기영, 2002: 74-92; 전광식, 1995: 10-37; 1997: 98-133; 조용훈, 2004: 11-36; 주만성, 2004, 41-77)와 『신앙과 학문』(이경직, 2003)에 게재된 논문들에 상당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어(James W. Sire, 2002; 2003; 2007)와 왈쉬와 미들톤(Walsh and Middleton, 1989), 그리고 문영빈(2003: 137-153)의 연구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음을 밝힙니다.

##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연구문제 1: 통합의 역 사: 어떤 신앙과 학문의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연구문제 2: 통합의 필요성: 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필요한가?

연구문제 3: 통합의 방 법: 어떻게 신앙과 학문의 틈을 메우고(fill up a crack), 다리 놓기(construct a bridge)를 할 것인가?

보 론: 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 서로 다른 다양한 스펙트럼의 존재 이유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신앙과 학문의 관계가 초기에는 통합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가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분열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再)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곤란한 이유는 오늘날 주류 학문의 경향인 과학주의(논리실증주의로 대표되는)와 통합에 있어서 주도권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물론 기독교내에 존재하였던 반지성주의 또한 통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잘못된 성경의 이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문제 2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Holmes, 1991)라는 기독교 전통과, 이중적 귀기울임(double-listening)에 대한 필요성(Stott, 2002)과 더불어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연구문제 3에서는 신앙과 학문 사이의 틈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합니다. 틈 메우기에 있어서는 모든 학문은 “숨겨진 가치”(hidden-values)가 존재한다는 점과, 학문에 있어서 통합의 분위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통합(통섭)에 대해서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경우에 연구자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한 가치(자신들의 세계관에 근거한)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학문은 “신앙에 기반을 둔’ 학문”(‘faith-informed’ discipline)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앙과 학문, 양자 간의 틈 메우기의 역할을 (기독교)세계관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는 신앙에 근거한 전이론적 성격을 지니는 세계관(기독교세계관이든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세계관이든 관계없이, 물론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기독교세계관이어야만 합니다)이 구체적으로 신학·철학 사이를 오가며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성경) ⇔ [기독교]세계관 ⇔ 신학 ⇔ 철학 ⇔ 학문(이성·과학·문화) 사이를 오가며 신앙과 학문 사이에서 다리 놓기(bridging)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 용어정의

본고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계관(世界觀)’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窓)’이라는 개념으로, 밥 하우즈바르트가 이데올로기를 정의할 때처럼 “매우 광범위하게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 신념, 및 규범의 전체 체계”(Goudzwaard, 2002: 18-19)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기독교세계관은 바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동의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앙(信仰)’이라는 개념은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형이상학적 신념체계”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데니(Gregory N. Derry)가 “나는 종교라는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잘 정의된 교리

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 종교들,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앙과 체험, 특별한 전통이 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종교적 체험 등 여러 종교를 모두 포함할 것이다. 믿음, 신비스러운 안목, 경전, 권위를 바탕으로 한 갖가지 종교 체험이 모두 포함된다.”(Derry, 2011: 213)고 정의한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김윤성이 언급한 것처럼 “무신론도 어차피 특정한 형이상학적 신념체계의 하나”(신재식·김윤성·장대익, 2009: 91)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유신론자가 되었던 무신론자가 되었던, 기독교인이 되었던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되었던 간에 연구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신앙(종교)에 근거한 세계관에 의해서 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합(統合)’이란 단순한 혼합(mix)이 아닌, 더 건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 부분들을 함께 모으는 것으로 총체성(wholeness)을 의미하는 것(Mouw, 1999: 219)으로, 오늘날 과학 분야에서 논의되고 또한 용어 자체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하기도 했던 통섭(consilience)의 개념 또한 포함하고자 한다. 통합의 경우 내용면에서 ‘어떻게 통합’(how to integrate)할 것인가와 ‘무엇을 통합’(what to integrate)할 것인가로 나누어지는데, 본고에서는 구조 통합(structure integration)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김용태, 2006: 150 참고).

## II 통합의 역사

### 1.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분리의 역사

신앙과 학문의 관계의 역사는 통합과 분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합의 역사였지만,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간극(間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앙과 학문과의 관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 1) 초기 통합의 역사

“고대에는 자연철학과 신학은 하나였다”(Markus, 1960: 31; Lindberg and Numbers, 1998: 59 인용)는 진술처럼 서양에서 신앙과 학문의 역사는 통합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60-480 년경)에게 ‘수(數)’란 정성(定性)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그에 의하면 ‘10’이 완전한 숫자이므로 천체의 숫자 또한 당연히 10개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눈에 보이는 9개의 천체(지구, 해, 달, 5행성, 항성) 이외에도 반(反)지구(counter-earth)라는 천체의 존재를 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타고라스의 자연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수학적’이라기보다는 ‘수비학(數秘學: numerology)’이나 또는 ‘숫자신비주의’(number mysticism)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김영식, 2008: 14). 한마디로 피타고라스주의자들에게 있어 “수학이란 무엇보다 종교적 행위였다.”(Wertheim, 1997: 16)고 평가합니다. 버트하임(M. Wertheim)<sup>1)</sup>이라는 과

1) “그리스의 수 분류 가운데 일부는 우리의 분류와 유사하다. 그들도 수를 홀수와 짝수로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1은 짝-홀로 분류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 이유는 1이 홀수와 짝수 둘 다를 생성시키기 때

학저술가는 현대 물리학의 종교적 기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역사가들이 보여주었듯이, 과학과 종교 간의 오랜 전쟁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에 생겨난 역사적 허구이다. 현대 물리학의 종교적 연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7세기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 수리과학은 수와 신성을 연관시키며 주변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학적 관계들을 “신적인” 것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전통으로부터 생겨났다. 기원후 1200년에서 1700년까지, 꼬박 500년 동안, 그러한 전통은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교에 의해, 나중에는 프로테스탄트교에 의해 키워졌다. 비록 오늘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더 이상 어떤 종교와도 공식적인 유대를 맺고 있지 않지만, 우주의 수학적 연구가 신적인 과업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광범위한 문화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Wertheim, 1997: 13-14).

기독교의 초기 교부(敎父)들의 경우 자연세계의 탐구를 크게 중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 가치 없다거나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에 대한 지식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수호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는 고대 말부터 중세 초기에 걸친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그리스의 과학적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런 역할을 사실상 담당하였던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여에 교부들의 저술과 수도원 및 성당부속 학교, 그리고 도서관 등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플라톤을 선호하는 등 선별적으로 보존하였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그리스 과학지식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성립에 성서 못지않은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성영근, 2004: 125-126).

또한 12세기에 대학이 설립된 이후 줄곧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은 기독교 신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토마스(Thomas Aquinas)적 전통에 따라 계시의 영역인 신앙과 이성의 영역인 학문이 상호보완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같은 근대 초기의 과학자들조차 유신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조용훈, 2004: 14 참조). 17세기 당시 근대자연과학의 거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 거승(巨僧)이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윌리엄 오토레드(William Oughtred), 뉴턴의 스승인 배로(Isaac Barrow) 등이 오늘날의 과학자(scientist)가 아니라 자연철학자(natural philosopher)였다는 사실에서 자연철학, 즉 자연에서 오묘하진 숨씨를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김용준, 2001: 258).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유명한 “인체 비례도”를 보면 신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완벽한 신의 모상인 인간의 몸은 역시 신이 창조한 기하학적 구도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도형인 원과 정사각형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이 해부학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기독교 신학과 기하학이 결합하여 해부학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강신익, 2007: 163).

일부 연구자 중에는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의 말을 예로 들어, 마치 터툴리아누스가 신앙과 학문의 분리를 주장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터툴리아누스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

---

문에 두 개의 본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1은 수의 기원과 원천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홀-짝의 이분법을 넘어서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Bloor, 2002: 219).

고 합니다(McGrath: 2007 참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어베르트(Herman Dooyeweerd)도 서양사상의 경우 각 시대마다 특정한 종교적 동인이 존재하였음을 지적합니다. 그에 의하면 고대에는 형상과 질료, 중세에는 은총과 자연, 근세에는 자연과 자유의 종교적 성격의 동인이 각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근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의 동인은 ‘창조-타락-구속’이라고 합니다(전광식, 1995: 21). 이는 각 시대마다 특정한 종교 동인으로 인해 신앙과 학문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홈즈(Arthur F. Holmes)와 같은 학자는 우리시대에 논의되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integration)이라는 개념보다는 ‘재(再)통합’(Re-Integration)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였고(Holmes, 1999: 161; 조용훈, 2004: 33 인용), 그린(Albert E. Greene, Jr.)과 같은 학자는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에서 “신앙과 학문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말이 오히려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Greene, 2003: 156). 이처럼 애시 당초부터 신앙과 학문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sup>2)</sup> 처음부터 가치중립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박상진, 2005: 6-7). 그러므로 당연히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sup>3)</sup>.

## 2) 신앙과 학문의 분리

12세기 아베로에스(Averroes: 12세기 아랍의 철학자)는 종교와 과학, 신앙과 이성을 구분함으로써 이중진리설(二重眞理說)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중진리설에 있어서는 신적인 것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신학, 세속적인 것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과학을 분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12세기에 교권과 속권의 대립이 나타났으며, 신학과 과학의 대립이 정치적으로 교권(敎權)과 속권(俗權)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에서 이중진리설의 대표적 논객이었던 오컴에 이르러 신학과 과학의 구별이 더욱 확고히 되었습니다. 과학혁명(김영식, 2002: 20-21 참조)과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과 학문은 결별(訣別), 즉 학문에서 신앙이 배제되기에 이른 것입니다(권오구, 2000: 52-53 참조).<sup>4)</sup> 계몽주의의 출현으로 인한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놀라운 혁명과 이로 인해 탄생한 [(논리)실

---

2) “내가 신앙과 학문 사이의 갈등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라. 그러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모든 학문은 어느 정도로 믿음으로써 출발하고 오히려 학문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거나 아니면 미신이다.”(Kuyper, 1993: 132; Kuyper, 2000: 159-161 참고).

3) 주만성은 학문의 세속화에 대한 역사적 개관으로 a) 회람사상: 질료와 형상동인(motive)의 이원론. b) 중세사상: 종합과 분열 속의 이원론(스콜라철학에서 ‘자연과 은혜’) c) 종교개혁시대: 학문적 개혁의 불발, d) 계몽주의 시대: 신앙과 학문의 결별로 구분하여 고찰한 것처럼, 학문에서 신앙이 분리된 것은 계몽주의 시대부터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중세시대 이후 신앙과 학문이 종합과 분열을 계속했지만 계몽주의 시대처럼 학문으로부터 신앙이 결별되지 않았다고 한다(주만성, 2004: 45-61).

4) 학문에서 신앙이 배제되는 것은 과학적 실증주의와 같은 학문적 경향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Kuyper는 신앙과 학문의 결별을 인식론에 있어서 죄의 문제로 접근한다. 즉 죄로 인해서 신앙이 배제되고 신앙과 학문은 결별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재료들에 대해 죄가 미친 가장 해로운 영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을 형성할 수 없게

증주의적]과학주의는 이 세상을 전례 없는 변화와 발전으로 이끌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끼친 세속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만일 어떤 지식이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증명가능하고(verifiable),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객관적(objective)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의미와 종교를 포함한 가치는 증명불가능하고, 측정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식의 영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결국 19세기의 실증주의는 대학에서 신앙과 지식의 분리를 야기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김영래, 2003: 331-332). 오늘날에도 논리실증주의 또는 과학주의로 불리는 학문 사조(思潮)가 주류학문을 장악함으로써 신앙과 같은 가치와 지식은 학계에서 배척되어졌고 이로 인해 신앙과 학문의 분리의 간격의 골을 더욱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논리실증주의도 본질적으로 보면 특정한 가치(하나의 또 다른 신앙과 진배없는 가치)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 2 통합의 곤란성

신앙과 학문의 결별 후, 신앙과 학문을 통합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통합의 어려운 현실을 결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프레이저와 캠펠로(Fraser and Campolo)는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문[여기서는 사회학을 지칭한다]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잘 성사시키는 것은 문화와 문화 간 또는 종교와 종교 간의 결혼식을 주선하는 것과 같다. 두 가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가정은 어디서 식을 올려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예식 내용에 대해서마저도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결혼 피로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가 계산을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음악과 장식품을 사용할 것인지-심지어는 어떤 춤을 출 것인지, 또는 도대체 춤을 추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등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Fraser and Campolo, 1996: 285-285).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있어서 애로(隘路) 요인으로 등장한 것일까.

### 1) 주류 학문 경향: [(논리)실증주의적] 과학주의

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이처럼 어려운 것인가. 과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현대인의 우상에 가까운 신앙 때문에 학문과 신앙의 통합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적 사상의 기반이 과학주의에 입각한 논리실증주의가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학문적 추세는 많은 학문 분야에서 스스로를 ‘과학적으로’(scientific) 정의하려고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주류 학문적 추세는 자연스럽게 종교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trivialization)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종교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

되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으며, 사랑이 없으면, 혹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호감이 없으면, 그 지식이 결코 풍성해질 수 없을 것이다. ... 이로부터 동시에 도출되는 것은,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 혹은 좁은 의미의 철학에 대한 지식도 죄로 인한 이 결핍들에 똑같이 넘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Kuyper, 1965: 337).

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사적(私的)이고 개인적(個人的: private and individual)인 영역과 관계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계통이라고 하는 많은 대학에서조차도 이러한 주류 학문의 경향을 답습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에 대해 마스덴(George M. Marsden)은 정치학자 존 그린(John C. Green)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수가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연구경향에 대해 언급했다면 사람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어떤 교수가 가톨릭 혹은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을 연구하자고 제안한다면, 그의 말은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이 제안한 내용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Steinfels, 1993: A22 인용). 그린의 말은 아주 핵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대학이 기독교 계통이기는 하지만, 신앙을 학문과 연관시키는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엉뚱한 생각으로 간주하고 말 것이다. 이런 현상은 종교와 연관된 학문만이 아닌,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된다. 종교적 관점이 학문적인 해석과 잠재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Marsden, 2000: 20-21 재인용).

실질적으로 종교가 학문의 해석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학문적 경향은 종교와 연관을 맺으려는 연구자들을 화성에서 온 우주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류 학문의 세계에서 학문과 신앙은 분리는 부인하기 힘든 현실로 다가옵니다.

주류 학문의 과학주의적 경향은 우리가 사용하는 학문용어들에 대한 의미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용어들이 가진 본래의 의미에서 과학적인 의미만 남고 비과학적(신앙이나 영적 의미)의 의미들이 사라지게 되거나 또는 포괄적이고 광의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의 의미가 매우 협소한 의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수학을 의미하는 mathematics의 경우, 본래 특정 학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학문 전체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래 그리스어 mathematikos는 정신적 훈련(mental discipline) 또는 지성인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learning)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였다고 합니다(현우식, 2007: 167). 당시에는 보통명사로 쓰인 단어가 오늘날 ‘수학(數學)’이라는 특정 학문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과학(science)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과학(科學)’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 학문을 뜻하는 독일어 Wissenschaft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Ladyman, 2003: 31 역주 참고)<sup>5)</sup>이었는데 지금은 엄격한 과학만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진리(aletheia: ἀληθεια), Professor, disciple, fact, theory 등<sup>6)</sup>과 같은 단어의 의미 또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5) 중세의 학문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의 권위자인 바이스하이플(J. A. Weisheipl)의 다음의 언급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 in Latin the term Scientia was used to designate a discerning, penetrating, intellectual grasp of situation or a given subject. Technically it was employed of knowledge that explained the situation fully and accurately through all or any of its true causes. This casual knowledge was considered possible in speculative research and in practical affairs, in theological analysis and 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Generally scientific knowledge was contrasted with the arts and technical skills, on the one hand, and with mere probability on the other. In other words, in medieval usage the term ‘science’ was given to every field of intellectual endeavor in which true causal explanations could be discovered.”(Weisheipl, 1965: 54; 김영식, 1994: 128 인용).

6) “Professor(교수)’라는 단어의 본래적 진정한 의미는 ‘믿음을 고백하는(profess)’사람이다. 진정한 교수는 사실과 이론과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교수는 진리의 초월적 중심-우리가 도달할 수 없



경향은 한자어(漢字語)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의(醫)”자의 경우, “의(醫)”와 같은 글자로 양 글자는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의(醫)자는 사용하지 않고(사람들은 이 의(醫)자가 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의(醫)자만을 사용합니다. 의(醫)자를 사용하지 않고 의(醫)자만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학의 학문적 경향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화의 영향으로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초자연적 요소[巫: 무당의 의미]가 술로 상징되는 약물 즉, 과학적 요소[西: 술, 약물의 의미]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도 이처럼 초자연적인 요소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강신익, 2007: 30-31).

## 2) 통합의 주도권의 문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것은 통합에 있어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이성은 긴밀한 관계이며, 서로 떨어져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후 2천년의 기간 동안 신앙과 이성은 동시에 동일한 진리를 생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 왔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일본의 철학자 아나가키 노수게(도원량전: 稻垣良典)는 신앙과 이성의 종합이 단순한 공존이나 병존이 아니라 진정한 종합을 위해서는 서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이 경우 신앙이 이성으로 서열 될 것이 아니라, 이성이 신앙으로 질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뜻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稻垣良典, 1980: 30; 최현근, 2007: 389-390 인용).

통합을 주도하는 측이 신앙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성이어야만 하는가. 이 주도권의 문제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한 것인가. 사회학과 신앙의 통합에 대한 데이비드 프레이저와 토니 캠폴로는 자신의 글에서 통합에 있어서 신앙과 학문 중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입장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

---

는 곳에 있으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역사 속에 들어오며 우리를 서로 및 세계와의 공동체로 인도하는 중심-을 긍정하는 사람이다”(Palmer, 2005: 162; Allegretti, 1999: 54 참조); “‘세속적(secular)’이라는 말은 라틴어 sec(u)lorum이 그 한 변형인 말 seculum에서 나왔다. 이 말은 ‘시대’나 어떠한 시기를 의미한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secular란 말을 자주 사용했지만 그 때에는 나쁜 뜻을 함축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시적(temporal)이란 말의 동의어로서 영원한(eternal)이란 말과 대조적으로 쓰였다.”(Mouw, 1999: 78-79); “중세 유럽을 지배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건강(健康)은 원죄 이전의 성스러운 상태(holiness)로서 모든 부분적 요소가 빠짐없이 드러나며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전체성(wholeness)이다. 치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heal)는 전체(whole)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며 이것은 또한 성스러운(holy)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질병은 신의 뜻에 거역한 죄의 결과이며, 건강은 신의 명령에 복종한 대가로 주어지는 선물이다”(강신익, 2007: 145); “서양 고대에서 ‘자연(自然: nature)’이라는 단어는 본래 우주 전체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그 단어는 주로 인간과 대립되는 것, 즉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사고의 변화를 보여 준다”(유원기, “오피니언 서문”, in Collingwood, 2006: 9); “오늘날 ‘vacation’이라는 말은 기능적이고 수공적이며 낮은 지위와 봉급이 지급되는 업종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은 직업을 위해 직업학교(vacation school)에 간다. 그러나 서구 역사에서 ‘vacation’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좀 더 높고 존경받는 지위를 표시했다. 예를 들면, 중세 교회에서 ‘vacation’이라는 말은 특별히 종교적 부르심-특별히 수도사-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는 사람만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Kammer, 1981: 153-183). 그 외 truth, fact, theory 등에 대해서는 Palmer(2005)를 참조.

면,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을 경우에 지적 제국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Fraser & Campolo, 1996: 295).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들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후술하겠지만 통합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통합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대표적인 사람은 Edward O. Wilson과 Ken Wilber를 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제목에서 본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처럼 [기독교]세계관이 신앙과 학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이성인 아닌 신앙에 근거로 하는 전(前)이론적이기 때문입니다.

### III 신앙과 학문의 통합 필요성

오늘날 주류 학문적 경향과 통합의 주도권 문제 때문에 통합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과 학문의 재(再)통합이 필요한가.

#### 1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먼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과 “모든 영역이 주님의 소유다.”라는 의미를 인지하게 된다면 연구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과 학문과의 관계에 서야만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카이퍼(Abraham Kuyper)는 “창조세계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는 나에게 속해 있다!’ 하고 외치시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다”(There is not one square inch of the entire creation about which Jesus Christ does not cry out, “This is mine! This belong to me!”)(Mouw, 2004: 167)고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듯이 학문의 영역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학문의 영역도 또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의 영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급해야만 합니다. 신앙과 학문이 서로 관계를 갖도록 해야만 합니다. 즉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영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는 아레오바고(Areopagus)의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바울 사도처럼 아테네 사람들의 세계관을 연구하고 그들의 갈망과 욕구를 검토하여 접충점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한다. 이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테네’를 공부해야[만] 한다(강영안, “교수의 추천의 글”, in Mouw, 1999: 7; 손봉호, 1979: 15 참조).<sup>7)</sup>

#### 1)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기독교의 전통

---

7)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적 수련을 받았으며,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의 학문을 수학했고, 바울은 랍비 학교에서 훈련받았다. 이들은 다른 문화의 신념이나 관행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는 그 당시의 학문과 문화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성경 기자들은 빼어난 문화적 재질을 보여 주며, 다양한 장르로 글을 썼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소유하였다(Holmes, 1991: 33; Clowney, 2001: 137-138 참조).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성(聖) 어거스틴(St. Augusti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경건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발견하는 곳마다 그 진리가 주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Every good and truth Christian should understand that wherever he may find truth, it is his Lord's)(Augustine, 1958: 54; 이학준, 2011: 119 인용).

종교개혁자 칼뱅(John Calvin)도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샘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더라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Calvin, 1960: 2.2.15. 273-274; Hummel, 1991: 186 인용).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은 청교도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힌슨(Edward Hindson)은 적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과학, 논리, 철학 등의 학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제반 학문들과 연결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학문적 탐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성서가 이성과 과학에 조화된다고 믿었기에 단순한 이성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서를 모든 이성적 진리의 기초로 받아들였고, 성서가 가르치는 것과 관계하여 진실적 실체를 분별하고자 했습니다(Thus Puritans did not fear science, logic, and philosophy, but sought to bring the Word of God to bear on each discipline. They believed that God can be glorified in every area of academic pursuit. They believed Scripture to be in harmony with reason and science, refusing to allow mere rationalism to overrule the Word of God. They considered Scripture the fountain of all reasonable truth and sought to discern 'reality' in relation to what the Scripture taught)(Hindson, 1980: 23; 이학준, 2011: 164 인용).

## 2) 터툴리안에 대한 재고

일부 학자 중에는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의 말을 예로 들어, 마치 터툴리아누스가 신앙과 학문의 분리를 주장한 것처럼 인용들 하는데 그의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지성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터툴리아누스가 사실 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텍스트들이 가끔 이 부분을 잘못 인용함으로써 마치 터툴리아누스가 반지성적인 것처럼 세인들에게 비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Sider, 1978: 417-419; McGrath, 2007: 195 참조). 하지만 “그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8)</sup>는 말은 터툴리아누스가 직접 쓴 것이

---

8) Certum est, quia impossibile. 이를 전체적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Tertullian, de paenitentia v, 4; McGrath, 2007: 196 재인용).

“Crucifixus est dei filius;  
non pudet, quia pudendum est.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다.

확실하다고 합니다. 모펫(James Moffat)은 터툴리아누스의 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것은 터툴리아누스의 글 속에 나타나는 가장 도전적인 패러독스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언어의 의미를 부수어 날카롭고도 효과적인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불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구절은 종종 잘못 인용되기도 하는데, 마치 그가 비합리적인 편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듯, 마치 그가 종교의 지성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처럼 이해되곤 한다(이것이 아프리카 교부의 저작을 직접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다)(Moffat, 1916: 170-171; McGrath, 2007: 197 인용).

맥그래스는 이성에 대한 터툴리아누스의 태도는 오히려 다음의 인용구에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성은 신의 속성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창조자인 신이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측, 배열,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을 통해서 조사하고 이해하길 바란다.”(Quippe res dei ration quia deus omnium conditor nihil non ratione providit disposuit ordinavit, nihil enim non ratione tractari intellegique voluit)(Tertullian, de paenitentia I, 2.; McGrath, 2007: 198 인용).

## 2 이중적 귀 기울임 필요

스토트(John R. W. Stott)가 말한, “이중적 귀 기울임”(double-listening)에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 왜 필요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토티의 이중적 귀기울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의 진리들로 형성된 동시에, 현대 세계의 실상을 잘 아는 기독교적 지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시킬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이중적 거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것으로 도피하여 그것이 세상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과, 세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세상을 본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 모두를 거부한다. 도피주의(conflict)와 본받는 것(isolation)은 정반대의 실수이지만, 둘 다 기독교적 선택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 거부 대신에 이중적 귀 기울임(double-listening),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부름 받았다. (……)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겸손한 복종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것은 무엇이든 믿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세상에 귀를 기울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역시 그것도 이해하려 애쓰면서,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믿거나 순종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공감하며 복음이 어떻게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한다(Stott, 2002: 31-32).

---

Et mortuus est dei filius;  
credibile prorsus est, quia ineptum est.

Et sepultus resurrexit;  
certum est, quia impossibile.”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는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토트가 말하는 ‘이중적 귀 기울임’은 두 음성, 곧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음성을 동시에 듣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아테네에 동시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과 학문에 대해서 동시에 귀 기울이는 통합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적 귀 기울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 3 완전한 이해

신앙과 학문이 통합되지 않는 시각은 이해에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팔머(Parker J. Palmer)는 ‘온전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視覺)입니다. 팔머의 다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쪽 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대개 지성(mind)의 눈에 의존해서 실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많은 이들이 다른 쪽 눈, 즉 지성의 눈은 보지 못하는 실재를 볼 수 있는 마음(heart)의 눈을 떠가고 있다. 한쪽 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시각’(whole-sight) 즉 ‘두 눈이 하나가 되어 바라보듯이’ 지성(mind)과 마음(heart)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Palmer, 2005: 15).

인간은 지금까지 ‘호모 펠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 종교적 인간)로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호모 사이엔티피쿠스’(homo scientificus: 과학적 인간)로도 살아왔습니다. 즉 인간은 항상 종교인(신앙인)이자 동시에 과학인(이성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생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신앙과 더불어 지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미지의 영역에 믿음으로 도전했었고, 이성으로 인간은 미신의 한계를 극복해 왔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믿음의 산물이요, 과학은 이성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의 세계는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현우식, 2007: 21). 마스덴(George N. Marsden)의 말을 인용하면 비신자는 과학의 모든 음표들(notes)을 들을 수 있지만, 유신론적 맥락과 조망이 없이는 그들은 노래(songs)는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Ratzsch, 1990: 170 인용). “온전한 시각”과 “온전한 들음”을 위해서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신앙과 학문 즉 믿음과 이성 간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의 다음과 같은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길 원하거나, 혹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관념이나 모든 방법을 이용해야지, 그것들 중에서 선택된 몇 가지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과학 이외에는 지식이 없다는 주장-과학 없이는 평안이 없다-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가장 편리한 우화에 불과하다(Feyerabend, 1987: 348).

과학[적 방법]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해를 위해 특정한 방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파이어아벤트의 위의 말은 오늘날 주류 학문의 경향인 경도(傾倒)된 [(논리)실증주의적]과학주의 방법론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선 하나의 것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통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IV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방법

##### 1 신앙과 학문의 틈 메우기

앞에서 약간 언급했듯이 과학주의(계몽주의와 과학적 실증주의 방법론<sup>9)</sup>)의 영향으로 신앙과 학문이 공(公)적 영역과 사(私)적 영역의 분리(Sire, 2003: 153)<sup>10)</sup>되었고 그로 인해서 신앙은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어 공적 영역으로 취급된 학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 분리의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신앙과 학문의 틈을 메울 수 있을까요.

[그림1: 신앙과 학문의 틈 메우기]

신앙(信仰)	통합의 근거는 무엇인가	학문(學問)
= 종교(宗教)		= 과학(科學)
= 성 (聖)	?	= 속 (俗)
= 사 (私)		= 공 (公)

##### 1) 숨겨진 가치(hidden-values) 존재

먼저 모든 학문에는 숨겨진 가치(hidden-values)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학문이론’이나, ‘과학철학’ 등이 밝혔듯이, 실증주의적 과학관에서 말하는 사실은 우리의 주관적 성향, 즉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세계관과 상관없이 별도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드시 주관에 의해 ‘해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석된 사실은 해석자의 일정한 동기와 관심, 세계관과 기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가다머(H.-G. Gadamer)의 ‘선입견’(prejudice), 쿤(Thomas S. Kuhn)의 ‘패러다임’(paradigm), 포퍼(Karl Popper)의 ‘기대의 지평’, 하버마스(J. Habermas)의 ‘관심’, 헨슨(N. R. Hanson)의 ‘관찰의 이론 의존성’, 그리고 도여베르트(H. Dooyeweerd)의 ‘종교적 동인’ 등은 다 이런 것과 관련된 개념입니다(전광식,

9) 종교적 믿음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도전을 위한 기초로 과학을 사용해 왔다. 네 가지 도전은 다음과 같다. (a) 종교적 믿음은 과학적이지 않다. (b) 종교적 믿음은 증명할 수 없다. (c) 종교적 믿음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d) 종교적 믿음은 [과학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다(Ratzsch, 2000: chap. 7 참조).

10) “‘종교적’이란 단어는 .... ‘의존하다’(rely)는 단어와 같이 ‘뭉어 매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religare에서 유래한다. 이는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 양심적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성·속(聖·俗)의 구분은 배제되고 있다”(Holmes, 1991: 28); 그런데 “현대의 사상가들은 종교와 도덕을 모두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과 구별되는 주관적인 가치의 범주로 분류한다.”(Johnson, 2000: 35).

2006: 50; 전광식, 1998: 266).

쿤(Thomas S. Kuhn)은 과학적 탐구가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특정 패러다임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대개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 기반에 대한 논리적 추론보다는 이미 채택된 패러다임을 신뢰하며, 그것을 의심하지 않은 채 연구에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중립적 관찰을 통해 합리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 과학관과 궤를 달리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과학자가 특정 패러다임 하에 연구를 하는 한 과학연구는 세계관과 미적 가치를 포함한 패러다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중립적이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Kuhn, 1977: 320-329; 홍성욱, 2004: 127 인용). 폴라니(Michael Polanyi)도 이와 유사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는 “과학적 지식까지도 포함된 모든 지식은 그의 저작의 책 제목에서 보듯이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Polanyi, 2001: 618-629 “웁긴이 해제” 참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인식자(認識者)가 믿는 사실이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서 강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위 지식의 정립 그 자체는 공식적인 신앙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Gillespie, 1996: 682 인용). “어떤 지성도 아무리 비판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믿음의 틀을 떠나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Polanyi, 1956: 266; 감영안, 2001: 107 인용). 폴라니에 대한 선도적 해석자 중 하나인 겔위크(Richard Gelwick)도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분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비록 현재 그 분리가 우리의 사고 습관, 이상, 삶의 조직 속에 제도화되어 있긴 하지만 말이다.”(Gelwick, 1977: 82; Palmer, 2005: 56 인용).

## 2) 숨겨진 가치는 종교적 가치

숨겨진 가치는 종교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이 종교적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저(Roy Clouser)는 『종교의 중립성에 관한 신화』(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에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이론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궁극적으로 지닌 이론 이전의 사고에 의하여 조건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혹은 다른 통제이론들은 그들이 전제로 하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내용에 따라서 이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Some religious belief or other controls theory making in such a way that the contents of the theories differ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religious belief they presuppose.”)(Gillespie, 1996: 683).

실제로 물리학자 데이비스(Paul Davies)는 한때 “과학은 신학의 부산물로서, 시작되었고, 모든 과학자는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간에 ……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인다.”고 말하였고(Davies, 1995: 138), 레이디맨(James Ladyman)도 “과학이론의 선택에서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과학이론들과 이와 다른 믿음의 체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Ladyman, 2003: 232)고 말하였습니다. 뉴먼(John Henry Newman)이 말했듯이, “종교적 진리는 보편적 진리의 한 부분일 뿐만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의 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Newman, 1901: 70; Gaebelein, 1995: 42-43

인용).

모든 학문이 그것이 비록 과학이라 할지라도 ‘숨겨진 가치’(hidden values)가 존재하고 그 숨겨진 가치가 바로 종교적 가치라고 한다면, 또 모든 지성이 ‘믿음’(이른바 종교적 믿음, 그것이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상관없이)을 전제로 하고 ‘믿음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과학이 하나의 ‘세계관’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하나의 귀결이 됩니다(김진홍, 2001: 157).<sup>11)</sup> 이는 곧 세계관으로서 신앙(종교)의 가치가 학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며, 세계관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세계관은 신앙과 학문의 사이의 틈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3) 통합의 관심 증대와 통합의 핵심<sup>12)</sup>

1994-1996년 필벨키안 재단의 후원으로 20세기 학문의 재구조화를 위한 석학들의 모임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월러스틴(I. M. Wallerstein)은 학문의 분과화가 만들어낸 20세기의 분열을 딛고 협력적 학문 활동(inter-disciplinary)을 넘어선 모든 학문의 철학적 통합(uni-disciplinary)을 제시(Wallerstein, 1996)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학문분야의 통합에 더 적극적인 근거는 실제로 통합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경우가 무척 많으며, 앞으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송정수, 2005: 221)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통섭)에 논의를 목격했습니다.

통합(통섭 consilience<sup>13)</sup>)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을 들 수 있습니다. 윌슨이 주장하는 통섭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윌슨의 통섭의 핵심은 모든 현상들-예컨대, 별의 탄생에서 사회 조직의 작동에 이르기까지-이 비록 길게 비비꼬인 연쇄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물리 법칙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Wilson, 2005: 460; 전용훈, 2007: 103 인용; Berry, 2006: 50 참조). 환원주의(還元主義)가 윌슨의 통섭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방법론입니다(홍성욱, 2007: 277). 윌슨에 의하면 사회과학은 개별 인간이 모여서 보이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학문이고,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예술적 창의성은 인간 본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특히 유전학, 진화학, 뇌과학과 같은 생명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홍성욱, 2007: 280)이 바로 윌슨의 생각이며 그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윌슨이 1975년에 출판한 『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의 마지막 장에서 “사회과학은 가까운

---

11) 양명수(2001: 194)는 “과학이라면 과학자의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기술 발전만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은 사람이 자유로운 주체가 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세계관이며, 인간관이었다. 개별적인 과학지식은 그 다음의 문제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의 핵심에는 인식론이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강상우(2012: 7-42) 참조

13) “Consilience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들이 보다 높은 자리로 비약하고 도약해서 부합되고 일치하는 것을 뜻한다. 즉 상향일치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실제로 윌슨이 하고 있는 것은 하향일치다. 윌슨은 물질보다 높고 큰 존재인 생명, 그보다 더 높고 큰 존재인 정신과 영은 더 낮은 물질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물리적 법칙으로 해명하려고 한다.”(Berry, 2006: 225).



미래에 생물학의 한 분과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장대익, 2004: 166)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에 대해 “통일에 대한 월슨의 모델은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합작품이 아니라 자연과학에 의한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적대적 인수 합병”(Jameson, 1998: 90; Barbour, 2002: 265 인용)이라고 한 비평가는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월슨에 대한 베리(W. Berry)의 평가입니다.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월슨의 계획은 공학적이다. 외견상 그는 물질적 환원주의라는 공법을 사용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 등 수많은 고립된 방들을 나누어 놓았던 벽을 허물고 여러 지식의 분과들이 한데 모여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학문지평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연과학의 방인 건물 전체로 확대되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한 물질적 환원주의는 공법 자체가 인문학이나 예술, 종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통합은 자연과학적 환원주의에 의해 인문학과 예술, 종교의 차이를 해소시키고 통합된 하나의 학문체계로 만드는 것이다(Berry, 2006: 226-232).

#### 4)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길

앞에서 월슨의 경우 환원주의적 방법에 입각해서 통합을 추구하고 진화생물학에 근거하여 통섭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월슨에게 있어서 통섭은 자신의 세계관(환원주의적·무신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 간의 통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슨처럼 통합을 추구하는 연구자들도 학문의 통합(통섭)에 있어서 자신의 학문적 전제(前提),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연구자 자신의 학문적 세계관 즉 학문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적 전제(앞의 설명에서처럼 모든 학문에 숨겨진 가치가 존재하는데, 이 가치는 종교적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슨의 하버드대학교의 제자인 최재천의 경우도 자신의 스승인 월슨의 통섭에 대해 비판적 자세<sup>14)</sup>를 취하지만, 그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통섭의 방법 또한 최재천 자신의 학문이라는 이름의 종교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간도 결국 자연계의 지배를 받는 동물의 한 종임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연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란 모름지기 자연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최재천, 2007: 307).

#### 2 통합의 교량 세계관: “‘신앙에 기반을 둔 학문’ = ‘세계관에 기반을 둔 학문.’”

모든 학문에 ‘숨겨진 가치’가 존재하고, 또 ‘믿음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면, 더 나아가 통섭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자 자신들의 세계관<sup>15)</sup>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모든 학문은 세계관을

14) “생물중심 환원주의에 대해 최재천은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생물학이 나무의 큰 줄기는 될 수 있지만, 사실 땅 속에는 이 나무줄기를 지탱하는 수많은 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또다시 강조하였다.”(강호정, 2007: 173); Donald Davidson(1980)은 “무법칙적 일원론”이라고 비판하고, 인지과학자 J. Fodor(1998)는 “인과적 설명의 그물은 넓혀진다. 그러나 그것은 아래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다.”

15) William H. Halverson은 “모든 세계관의 중심에는 그 세계관의 ‘표준명제’로 불리는 것이 있다. 실재에 관해 유일하게 근본적인 진리라고 여겨지는 명제이다. 또한 다른 명제 가운데 어떤 명제가 믿을 만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명제이다. 어떤 명제 P가 표준명제 또는 세계관과 모순되는 것으로 드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문의 밑바닥에는 세계관이라고 불리는 신앙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앙에 기반은 둔 학문으로서 학문의 근저(根柢)에 있는 세계관과 기독교세계관이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연구자의 경우 기독교세계관을 통해서 학문의 통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자 자신들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연구자들은 기독교세계관에 중심으로 학문을 연구할 것이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비기독교연구자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근거로 학문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세계관을 근거로 학문의 통합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경은 “기독교세계관의 원리는 학문의 원리와 신학의 원리를 통합한 원리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성인경, 2001: 124). 성인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의 빛 아래에서 모든 학문을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 원리는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진리의 빛 아래 학문의 원리를 통합하는 것을 기독교세계관의 원리 또는 성경적 통합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기본원리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근본원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외적 원리와 성령이라는 내적 원리가 그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 간의 갈등과 대립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일하고 정확하고 통일적인 지식이 가능하게 한다(성인경, 2001: 132).

성인경이 제시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신앙과 학문의 통합 전과 후]		
통합 전		통합 후
<p>내적 원리: 이성 · 경험</p> <p>외적 원리: 자연 · 세상</p>	⇒	<p>내적 원리: 성령 × 이성 · 경험</p> <p>외적 원리: 성경 × 자연 · 세상</p>
근본 원리: 종교 · 신앙		근본 원리: 하나님 × 신앙 · 종교

자료: 성인경, 2001.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 기준을 결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쉬와 미들튼(J. Walsh and J. Richard Middleton)은 세계관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결코 단순한 삶에 대한 시각(vision of life)만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삶을 위한 시각(vision for life)이다. (……)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가치기준을 결정한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 주위의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게 한다(Walsh and Middleton, 1989: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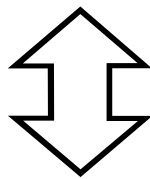
세계관의 이러한 기능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관이 학문

---

러난다면, 우리가 그 세계관을 고수하는 한, P명제를 거짓으로 여겨야 한다.”(Halverson, 1976: 384; Nash, 2003: 71 인용).

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이어(James W. Sire)와 왈쉬와 미들튼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림3: 세계관과 과학적 연구]를 보면 세계관이 학문에 내재하는 가치관들을 지배하며, 적격(適格)이 될 만한 이론들의 종류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문에서 세계관은 심지어 연구 중인 실재의 한 부분을 지배하거나 제한하는 역할도 하게 됨(Sire, 2002: 183)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3: 세계관과 과학적 연구]



연구되는 실재의 부분.  
방법론.  
이론.  
가치관.  
세계관

자료: Sire, 2002: 184

왈쉬와 미들튼은 모든 학문이 어떤 철학적 패러다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모든 철학적 패러다임은 이런 혹은 저런 종류의 (종교적)세계관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세계관으로부터 학문으로의 진전에 대해서 [그림4: 세계관에서 학문으로] 나타냅니다. 세계관(world view) 혹은 관점(perspectives)은 인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Hoffecker, 1992: 13).<sup>16)</sup>

[그림4: 세계관에서 학문으로]

세계관 -----> 철학적 패러다임 -----> 학과

실체의 전체성에 대한  
전(前)이론적(pre-theoretical) 견해.

실체의 전체성에 대한 이론적 견해.

실체의 어떤 특정한 측면에 대한  
이론적 견해.

자료: Walsh and Middleton, 1989: 212

하나의 세계관 혹은 모든 삶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가 이론적인 철학적 틀(framework)을 구성할 때부터 학문 활동에서 최초 기능을 발휘하게 합니다(Walsh and Middleton, 1989: 212-213).<sup>17)</sup> “학문 영역에

16)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는 이렇게 선언한다. ‘인본주의자들은 서로 싸우며 절대적인 여러 종교 체계들을 대체할 새로운 하나의 종교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철학에 의해 살고 있는 것이다. (….) 인본주의는 세속화와 동일시되어는 안 된다. 인본주의는 성경적 신앙에 상반되는 많은 신념들을 신봉하는 삶의 철학이요, 종교적 세계관이다. 한편 세속화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다”(Hoffecker, 1992: 261-262).

17)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기존 믿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에 맞는 증거를 찾고, 상기시키며, 해석한다.”(Nisbett and Ross, 1980: 192; McGrath, 2007: 161 인용); 또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보통

는 신앙이 들어 올 수 없다는 주장은 학문은 가치중립적이라 주장되던 전근대적인 견해와 동일하다. 모든 학문의 주장에는 반드시 그 밑바탕을 이루는 기초 전제들이 있는데 이는 세계관이라고 한다”(양승훈, 1993: 68).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모든 세계관은 결국 ‘신념 체계’의 범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름 아닌 증명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본질이며, 모두가 그것을 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누구도 세계관을 간직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두 번째로 완전한 지적 성실성(integrity)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McGrath and McGrath, 2008: 109). 다만, “하나의 패러다임(paradigm) 또는 세계관이 다른 패러다임이나 세계관으로 대체될 뿐이다. 이러한 세계관들을 넘어서 있는 중립적 세계관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Brown, 1990: 1:10; 이경직, 2003: 50 인용). 이런저런 것에 대한 신앙은 세계관으로서 모든 학문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信仰)에 기반(基盤)을 둔’ 학문”(“‘faith-informed’ discipline”)이라는 마스덴의 표현에서처럼 기존의 종교적 배경으로 구축된 신념체계가 원칙적으로 다른 세계관과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하며(Marsden, 2000: 25) 이는 다른 학문의 세계관과 동일한 지위를 지니는 기독교세계관은 학문에 있어서 타(他)세계관들과 같이 학문적인 전제가 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신앙과 학문을 통합을 위한 교량(架橋)적 역할을 기독교세계관이 담당하게 된다.

### 3 신앙과 학문 사이에 다리 놓기

#### 1)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과 학문 사이의 다리 놓기를 할 것인가. 문영빈(2003: 137-153)은 자신의 논문 “신앙과 학문의 연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앙과 학문의 연계는 신학과 철학의 매개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영빈에 의하면 [그림5: 신앙과 학문의 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과 학문의 연계를 위해서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반드시 신학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고 이러한 신앙과 학문의 연계에는 단순히 사고(思考)만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과 학문들의 연계는 직접 이루어지기 보다는 철학적 사고를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대상 현상들을 해석하는 지면에는 철학적 전제(일종의 세계관)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며, 신앙과 학문을 연계하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철학적 전제들에 대한 고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문영빈, 2003: 143-146 참조)<sup>18)</sup>

---

연구자의 생각 속 상당히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암묵적(暗默的) 믿음들은 매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된다. 종교적 믿음 체계와 반-종교적 믿음 체계 모두 자신의 믿음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제한시키거나, 거절하거나, 혹은 그 믿음 체계에 도전하려는 위협들을 거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전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 이론들이 “거의 ‘데이터’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만든다.”(Nisbett and Ross, 1980: 169; McGrath, 2007: 161-162 인용).

18) 니버의 Christ and Culture에 근거한 “신앙과 학문의 연계 유형”에 대해서는 문영빈(2003: 146-151).

## [그림5: 신앙과 학문의 연계]

### 신앙 ⇔ 신학 ⇔ 철학 ⇔ 학문

자료: 문영빈, 2003: 145.

먼저 학문을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을 통한 신학적 접근을 의미한다. 문영빈은 신앙적 해석의 지평을 통해서 재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신학적 작업을 요한다고 합니다(문영빈, 2003: 144). 그렇다면 신앙의 해석의 지평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문영빈은 기독교적 전통이 가지는 고유의 해석의 지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문영빈, 2003: 141). 그래서 문영빈(2003: 142)은 “계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적 신앙과 학문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하였으며, 스피어(Spier, 2001: 27) 또한 “성경은 우리의 과학적 사유를 마땅히 이끌어야 하는 신적 안내자(Divine Guide)이다.”고 했던 것입니다. “계시된 진리가 없다면, 이성(이성)은 아무런 자료를 갖지 못하며 신앙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양심은 부패된다.”(“Without revealed Truth, Reason has no data, Faith is false and Conscience is corrupt.”)(Byrne, 2005: 258 인용)는 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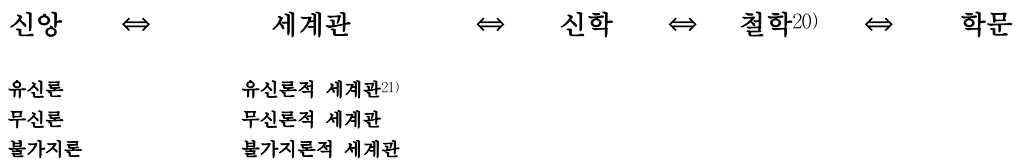
신앙과 학문을 연계하기 위하여 신학적 작업과 철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통합을 하고자 하는 학문의 저변에 깔린 전제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즉 통합을 추구하는 학문의 밑바탕에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고찰<sup>19)</sup>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문영빈, 2003: 145).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학과 철학은 세계에 대한 전이론적 관점 즉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학과 철학은 세계에 대한 전(前)이론적 관점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신학과 철학은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다듬은 결과물이다.”(Wolters, 1985: 9; Sire, 2007: 46 인용). 그런가 하면 “세계관은 아직도 철학적 체계나 신학적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철학적 체계나 신학적 체계는 세계관을 근거로 형성된다. 즉 세계관은 이론 이전의 사유(pre-theoretical thinking)이다. 이것은 훔설(E. Husserl)이 말하는 ‘선술어적(先術語的) 판단’(praedikative erfahrung)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의 ‘이해의 선구조’(Vorstruktur des

---

19) 이에 비슷한 논증을 Wolterstorff는 Dooyeweerd의 주장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어베르트는 이런 주장을 펼친다. 학문의 구조 안에는 본래 어떤 철학적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철학적 이론화 작업의 구조 안에는 철학적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 그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들은 그 무엇을 실재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정립할 때 해석의 실마리로 삼는다는 것 등이다. 그들이 해석의 실마리로 절대시하는 그것이 이런 양상 중 하나이거나-이 경우에는 그들의 사상이 환원주의적 성격을 지닐 것이다-창조 질서 바깥에 있는 그 무엇-말하자면, 하나님-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환원주의를 피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절대시하는 문제를 거론할 때는, 도어베르트가 보기에, 이미 종교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론가에게 종교적 헌신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된다. 물론 안타깝게도 어떤 학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이론화 작업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절대시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론과 삶, 혹은 적어도 이론과 고백 사이의 종교적 이중성을 보게 된다.”(Wolterstorff, 2007: 323 인용).

Verstehens)나, 가다머(H-G. Gadamer)의 ‘선관단’(Vorurteile)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영한, 2006: 21) 즉 신앙에 근거한 전이론적 관점인 세계관을 통해 철학적 체계나 신학적 체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해서 통합을 피하고자 하는 학문과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6: 세계관을 교량으로 한 신앙과 학문의 연계]



다시 말해 신앙과 학문을 연계하기 위해 신앙(기독교의 경우 성경)에서 전이론적 관점(前理論的 觀點)인 세계관(기독교세계관)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얻은 세계관을 통해 신학적 작업과 철학적 사고의 과정을 걸치면서 통합을 피하고자 하는 학문과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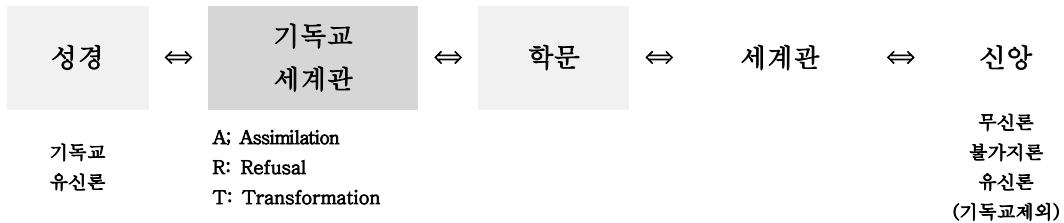
그렇다면 기독교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그림7: 세계관을 교량으로 한 기독교신앙과 학문의 연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유신론적 세계관(특히 기독교세계관)을 얻게 되고 이를 토대로 한 신학적·철학적 작업을 걸쳐서 학문으로 접근하게 된다. 반면에 통합을 대상이 학문은 그 학문의 전제가 되는 세계관(무신론이든 불가지론이든, 아니면 기독교를 제외한 유신론이 보편적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유신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에 토대를 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을 통해서 여과의 과정을 걸쳐야 한다.<sup>22)</sup>

20) “철학과 신학이 근본적인 원리와 궁극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철학과 신학이 과학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철학과 신학은 모든 과학을 위한 궁극적 안내자(ultimate guides)가 되는 것이다”(Byrne, 2005: 334); “철학은 모든 다른 과학들의 필수적 기반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과학은 어떤 철학적 전제를 위해 수립된다.”(Spier, 2001: 19); “모든 철학은 종교적 출발점은 지닌다.”(Spier, 2001: 45); “철학은 삶의 일부분이며, 신앙의 표현이다. 그래서 철학은 완전히 논리적인 과학이 아니다.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며, 무감각하게 진행되는 학문이 아니다. 어떤 관점에서 철학을 하던 간에, 철학은 결론을 연역해내는 일이 아니라, 의미를 덧붙이는 일이다.”(Holmes, 1968: 219; Nash, 2003: 96 인용); “과학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背景)상 종교적이다. 과학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발생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위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선택을 한다.”(Spier, 2001: 41).

21) 기독교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신학과 철학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다(Holmes, 1994: 67); “철학은 삶의 일부이며, 신앙의 표현이다. 그래서 철학은 완전히 논리적인 과학이 아니다. 삶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며, 무감각하게 진행되는 학문이 아니다. 어떤 관점에서 철학을 하던 간에, 철학은 결론을 연역해내는 일이 아니라, 의미를 덧붙이는 일이다. ...”(Holmes, 1968: 219; Nash, 2003: 96 인용).

22) 참고로 기독교교육자들은 성경, 기독교신학, 기독교철학에 의해 표현되는 성경적 학문이 전교과교육과정의 통합과 해석을 가장 적절하게 하는 객관적 기초와 총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제공한다(Byrne, 2005).

[그림7: 세계관을 교량으로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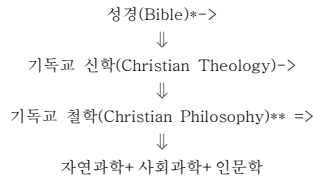


## 2) IOFAS Model(Integration-Of-Faith-And-Scholarship Model)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 강영안은 “기독교와 학문”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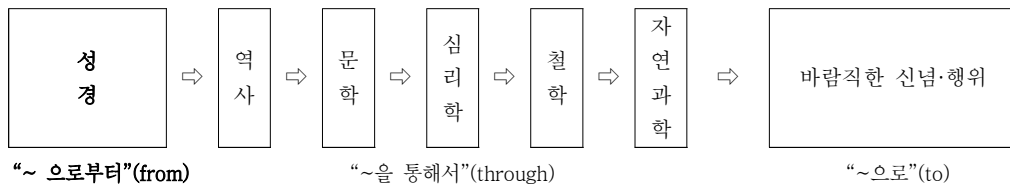
현대학문과 세계관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내세움으로써 반박될 수 없거니와 몇몇 성경구절을 조합함으로써 대안을 제시될 수도 없는 것이다. 현대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까지도 지배하는 현대의 학문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그 학문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 가운데 깔려있는 전제와 신앙을 노출시키고 기독교적 신앙과 전제에 어울리는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란 지극히 힘든 일이며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림8: 신앙과 학문의 통합의 과정]



자료: Byrne, 2005

[그림9: 학문의 올바른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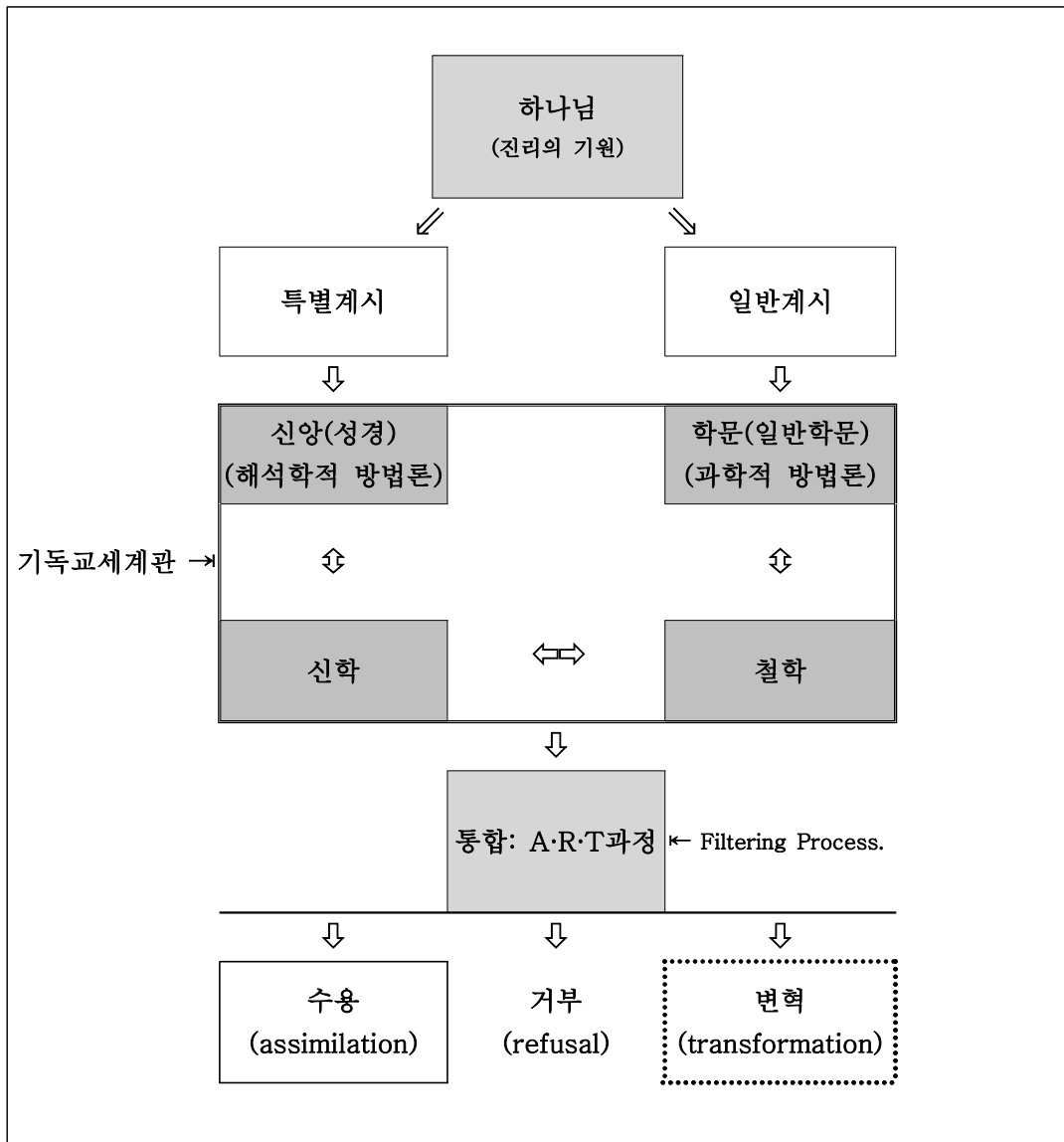
자료: DeJong, 1985: 83-84; 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 편, 2004: 18 인용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학문들을 심리학적, 역사적, 수학적, 철학적, 과학적,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종교적인 것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또한 조명해 나갈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성경 자체가 모든 신념, 지식 그리고 교육적 사과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 편, 2004: 18).

(강영안, 1989: 15; 신국원, 2003: 250 참조).

[그림10: 신앙과 학문의 통합 모형 IOFAS]<sup>23)</sup>

(Integration-Of-Faith-And-Scholarship Model)



자료: Ward, 1977; Meier, Minirth, Ratcliff and Ratcliff, 2004: 34 변형.

신앙과 학문의 통합 모형(IOFAS Model)<sup>24)</sup>을 다음과 같은 [그림10]로 나타낼 수 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시의 첫 번째 일은 성경을 통한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여과기를 통하여 세속적인 개념들을 걸러내

23) 비슷한 내용은 Crabb(1996: 5)과 Hummel(1991)에서 찾아볼 수 있다.

24) IOFAS의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는 Collins(1992)에서 가져왔습니다.



(filtering)는 것입니다. 잘못된 통합의 경우 쉽게 혼합주의(syncretism)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교와 기독교를 혼합하여 신앙을 훼손시키는 저급한 기독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합은 단순한 혼합(mixed)이 아니라, 학문 안에서의 ‘학문 내적인 통합’(intra-disciplinary integration)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문 내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통합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학문을 수용·거절·변형(受容·拒絶·變形 즉, A·R·T: Assimilation, Refusal, Transformation)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언급된 베뢰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을 조심스럽게 경청하고, 집에 가서 바울이 전한 말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 연구하는 ‘신사적인’(noble-minded)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25)</sup> 학문의 세계에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비평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Collins, 1992: 90). 이는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세계관으로 다른 인본주의적 세계관-그것이 과학적 휴머니즘이든, 낭만적 휴머니즘이든,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든, 아니면 마르크스적 휴머니즘이든-에 의한 지식과 교과, 교육내용을 기독교적으로 비판(Christian Critique)하고 원래의 모습의 회복을 추구(박상진, 2005: 5)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독교 학문연구소 소장인 해리 편하르트 박사가 케이크의 경우를 예를 들어 ‘생크림’만이 아니라, ‘빵’도 기독교적이어야만 된다고 말할 것처럼 말입니다(유종성, 1996: 69).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연구자는 기독교 형식만이 아니라 그가 전공하는 학문의 내용에서도 기독교적인 특색을 담아야 합니다(조호연, “부록2” in Marsden, 2000: 186).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 비추어 이론적인 관점을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한다.”(Fagan, 1994: 32)는 말에서나, 말릭(C. H. Malik)이 자신의 책 『대학의 위기: 기독교적 비판과 대안』의 제4장 “과학”과 제5장 “인문학”에서 다른 제(諸) 가치(價値)들에 대해 기독교적 비평[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의 평가]을 하고 있는 것(Malik, 1990: 제4장과 제5장 참고)과 같은 맥락을 지닙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상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들 사상들을 여과(filter off)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 V. 맺은 말

“고대에는 자연철학과 신학은 하나였다”(Markus, 1960: 31; Lindberg and Numbers, 1998: 59 인용)는 말처럼 신앙과 학문은 통합되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를 걸치면서, [(논리)실증주의적] 과학주의가 학문의 영역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지식이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증명가능하고(verifiable),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객관적(objective)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주류 학문의 보편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증명불가능하고, 측정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주관적인 가치는 더 이상 진리의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의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종교와 신앙, 영성은 이제 사적 영역

25)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Now the Berean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e Thessalonians,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NIV)

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주제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신앙과 학문의 분리의 골을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류 학문이 신앙과 학문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독교연구자라면 주류 학문의 경향과 달리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듯 학문의 영역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이었으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중적 귀 기울임과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학문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학문에는 ‘숨겨진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가치는 종교적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또 통합의 바람이 학계에 불었는데, 통합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이 통합을 할 때 사용한 것을 보면 통합을 추구하는 연구자 자신의 가치(세계관)에 중심을 둔 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앙에 기반을 둔 학문’, 즉 ‘세계관에 기반을 둔 학문’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을 교량으로”하여 통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가치기준으로 작용하고,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이론적 철학적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관이 전(前)이론적이기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이는 신학적·철학적 사고를 통해 통합의 대상이 되는 학문과 통합을 위한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신앙과 학문 간에 연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세계관은 단순히 연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A·R·T Process를 감당하게 됩니다. 즉 수용·거부·변혁(Assimilation·Refusal·Transformation)을 통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보론: 왜 통합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다양한 유형의 스펙트럼에 존재하는가?

신앙과 학문(이성·과학·심리학·사회복지학·법률·문화를 포함)의 통합에 대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통합에 관한 유형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통합에 관한 유형>		
분야	연구자	관계 모형
신앙과 문화	Niebuhr (1977)	(1)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대립유형: Christ against Culture) (2) 문화의 그리스도(일치유형: Christ of Culture) (3)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우위유형: Christ above Culture) (4)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 (역설모형: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5)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 (변혁유형: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Weber <sup>26)</sup> (1989)	(1) 분리모델 (2) 동일시 모델 (3) 변혁모델(transformational model) (4) 성육신 모델
신앙과 과학	Barbour (1999: Ch.1 ; 2002)	(1) 대립적 유형(conflict type) (2) 독립적 유형(independence type) (3) 대화적 유형(dialogue type) (4) 통합적 유형(integration type)
신앙과 학문	Spykman (1991: 5)	(1) 반립(Opposition) (2) 적응(Accommodation) (3) 이원주의(Dualism) (4) 역설(Paradox) (5) 개혁(Reformation)
	문영빈 (2003: 137-153)	(1) 근본주의적 유형: 신앙 ⇒ 신학 ↔ 세속학문(대립적 관계) (2) 자유주의 유형: 신학 ⊂ 세속학문(신학은 세속학문에 포함) (3) 가톨릭 유형: 신앙 ⇒ 신학 ⊃ 세속학문(신학으로 통합, synthesis) (4) 루터주의 유형: 신앙 ⇒ 신학 ∞ 세속학문(역설적 관계) (5) 개혁주의 유형: 신앙 ⇒ 신학 ⇒ 철학(기독교적 세계관) ⇒ 세속학문 ⇒ 기독교학문(통합) (6) 다(多)학제적 유형: 신앙 ⇒ 신학 ⇔ [철학] ⇔ 세속학문(대화를 통한 창조적 지평융합)
신학과 심리학	Carter & Naramore (1979: 71-116)	(1) 대립모델(against model) (2) 중속모델 (3) 병행모델(parallels model) (4) 통합모델(integrated model)

	<b>Crabb<sup>27)</sup></b> (1993: 1-62; 2003: 26-331)	(1) 분리되었으나 동등하다고 보는 입장(Separate but Equal) (2) 문제 해결에 두 분야가 다 유용하다는 입장(Tossed Salad) (3) 심리학을 거부하는 성경중심의 절대적인 입장(Nothing Butterists) (4)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심리학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Spoiling the Egyptians)
	<b>Collins</b> (1981: 23-47)	(1) 부인하는 접근법(the denial approach) (2) 철로 접근법(the railroad track approach) (3) 분석 수준 접근법(the levels of analysis approach) (4) 통합된 모델을 통한 접근법(the integrated models approach) (5) 강탈 접근법(the spoiling the Egyptians) (6) 재건 접근법(rebuilding approach)
	<b>Farnsworth</b> (1982: 208-319)	(1) 신용모델(credibility model) (2) 전환모델(convertibility model) (3) 적응모델(conformability model) (4) 병립모델(compatibility model) (5) 보완모델(complementary model) (6) 내재모델(embodied integration model)
	<b>Eck</b> (1996: 101-115)	(1) 비통합적 패러다임(non-integrative paradigm) (2) 조정적 패러다임(manipulative paradigm) (3) 비조정적 패러다임(non-manipulative paradigm).
<b>신앙과 사회복지</b>	<b>장동민</b> (2005: 131-154)	(1) 재구성모형(Re-constructionist Model) (2) 양립모형(Compatibilist Model) (3) 변혁모형(Transformationist Model)
<b>신앙과 법률</b>	<b>Allegretti<sup>28)</sup></b> (1988: 131-141; 1999)	(1) 규약을 거부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the Code) (2) 규약과 조화되는 그리스도(Christ in Harmony With the Code) (3) 규약과 긴장관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in Tension with the Code) (4) 규약을 변혁하는 그리스도(Christ Transforming the Code)

26) Robert E. Webber가 주장한 성육신 모델이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의 참여에 대한 궁극적 모범으로, 그가 오셨을 때, 그는 우리들 가운데 사심으로써 자신을 삶의 구조 속에 끼여이 맡기셨다. [동시에] 그러나 그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는 분리되었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써 악을 멸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Webber, 1989: 209).

27) Roland Artholzer는 위의 Lawrence J. Crabb의 네 가지 모델 중 어떤 것도 만족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그 자신이 제안하는 견해를 다섯 번째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에 의하면, 내담자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즉 진단을 위해서라면 ‘애급사람들 약탈하기’를, 이와 반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하는 것, 즉 치료를 위해서라면 ‘비타협’을 제안한다(Artholzer, 2005: 110).

28) Joseph G. Allegretti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책을 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의 실체이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며, 나의 삶과 영적 여정에 직접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는 신앙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독교 전통에 법조인이 자신의 일을 가장 내면적이고 깊은 가치관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연구』의 연구들과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고전적인 연구인 니버(H. Richard Niebuhr)의 관계 구분 연구가 있고, 니버의 Christ and Culture의 관계 유형과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 웨버(Robert E. Webber)의 연구가 있다. 웨버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1) 분리모델, (2) 동일시 모델, (3) 변혁모델(transformational model)로 구분하였다. 웨버 교수는 자기 나름으로 세 모델을 종합할 수 있는 모델인 ‘성육신 모델’을 제시하여,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과학과 신학의 관계의 유형들에 대한 여러 제안들이 있는데, 그 중 바버(Ian Barbour)에 의해 제안된 네 가지 유형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스파이크만(Gordon J. Spykman)은 니버의 분석을 기독교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적용하여 기독교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5가지의 역사적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1) 반립(Opposition), (2) 적응(Accommodation), (3) 이원주의(Dualism), (4) 역설(Paradox), (5) 개혁(Reformation)이다. 스파이크만은 이 다섯 가지 관점들 중 기독교적 학문을 위해서는 개혁(Reformation)의 관점이 다른 네 가지 관점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규범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관점이라고 본다. 이 입장이 가진 통전적 특성은 학문이 유일한 초월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카터와 내러모어(John D. Carter and Bruce Narnamore)는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려는 유형을 대립모델(against model), 종속모델, 병행모델(parallels model), 통합모델(integrated model) 네 가지로 나누었다. 기독교적 통합모델은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신학을 통해서 심리학적 결과를 검토한 후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랩(L. Crabb)은 통합에 관한 접근을 심리학 개방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랩은 4번째 입장인 Spoiling the Egyptians(일종의, 강탈모형)를 취한다. 비록 심리학이 자주 성경적인 개념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심리학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심리학의 결과물 중에 성경과 모순되는 개념들만 주의 깊게 가려내어 거부해야 한다고 한다. 콜린스(Gary Collins)는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섯 가지 다른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다. 재건접근법(the rebuilding approach)은 콜린스의 주장이다. 이 접근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진리는 성경과 자연을 통하여 계시되며 심리학은 과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이 표방하는 완전한 중립은 신화에 불과하

과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고 확신한다. 신앙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그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Allegretti, 1999: 21); Joseph G. Allegretti는 H. Richard Niebuhr의 이론에 근거하여 법률과 신앙과의 관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llegretti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와 “문화의 그리스도”(Christ of Culture)가 너무 유사하여 따로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H. Richard Niebuhr	Joseph G. Allegretti
1모델	문화를 거부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규약을 거부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the Code)
2모델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규약과 조화되는 그리스도 (Christ in Harmony With the Code)
3모델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규약과 긴장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in Tension with the Code)
4모델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Christ Transforming the Culture)	규약을 변혁하는 그리스도 (Christ Transforming the Code)

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과 생각에는 기본적 가정들과 전제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전제를 중심으로 심리학과 신학 또는 기독교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판스워드(Edward P. Farnsworth)의 경우 내재모델을 통합의 방법으로 제안한다. 엑크(Brian E. Eck)는 통합론자들이 과학과 신학에서 나온 데이터와 관련해서 세우는 가정에 의해서 3가지 큰 패러다임을 조직화할 수 있다고 본다. 비통합적 패러다임(non-integrative paradigm)은 데이터의 통합을 추구하지 않는, 즉 통합을 거부하는 입장이다. 조정적 패러다임(manipulative paradigm)은 심리학과 신학의 자료들의 통합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한 학문의 데이터는 다른 학문에 수용되기 전에 먼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비조정적 패러다임(non-manipulative paradigm)은 양 문학의 데이터를 바로 통합과정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외에도 플란팅가(Avin Plantinga)는 신학과 심리학의 상호관계와 그 입장에 대해 (1) 통합론(Thomists), (2) 분리론(Averroists), (3) 흡수론(Augustinians)이 있다고 주장했다(Stephen, 1993: 35). 전요섭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흡수통합론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플란팅가가 'Augustinians'라고 명칭을 붙인 것인데, 신학을 지키면서 심리학의 학문적 결과들을 취사선택하며 신학에 유익을 가져오는 범위 내에서 심리학을 흡수하는 유형이다(전요섭, 1999: 301-333).

그렇다면 왜 통합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다양한 유형의 스펙트럼에 존재하는가? 신앙과 학문을 통합할 때에 '교량의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관이 단순히 신앙과 학문 사이의 연계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통합 시(時)에 구체적으로 A·R·T 과정으로 필터링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합의 유형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에 있어서 분류 상(上)에 있어서 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자가 통합 사례들의 스펙트럼을 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별 분류의 원조격인 니버(H. Reinhold Niebuhr)는 인물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물의 이론이라 하더라도 통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A·R·T의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버가 제시한 것처럼 어거스틴(St. Augustinus)이 변혁모형에 해당하지만 어거스틴의 사상을 통합할 때에는 신앙(성경)에 비추어[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에 입각해서] 다시 A·R·T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니버가 구분한 것에 의해서 대립유형이라 할지라도 그 유형을 전체적으로 배제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 때로는 Transformation을 통한 수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 같은 이론이 변형되어 수용되기도 하는가 하면, 일언지하에 거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항상 (자기)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에 말입니다.

## 참고문헌

- 강상우 (2011). “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A·R·T 과정” 춘계학술대회 대학원생분과발표자료.
- 강상우 (2012).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론 관한 소고: 이론적 고찰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1). 7-42.
- 강신익 (2007).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서울: 휴머니스트.
- 강영안 (2001). “과학적 합리성 이해의 세 모형: 1960년에서 1980년 중반까지 과학철학, 현상학, 해석학을 통한 한국철학자들의 과학이해”. 『동아연구』. 41.
- \_\_\_\_\_ (1989). 『기독교와 사회, 학문, 대학』. 서울: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 강호정 (2007). “환원주의를 극복하려는 생물학”. 최재천·주일우 편. 『지식의 통섭-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159-175.
- 권오구 (2000). 『사회복지발달사』. 개정증보2판. 서울: 홍익재.
- 김기덕 (2005). 『사회복지윤리학』. 서울: 나눔의 집.
- 김영래 (2003). “신앙과 지식의 통전적 관계 회복: 19세기 미국 근대 대학의 경험과 교훈”. 장종철교수 은퇴기념논문편집위원회 편. 『믿음의 길 각성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영식 (1994). “과학의 발전과 서양 학문 체계의 변천”. 소광희 외. 『현대의 학문체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울: 민음사.
- \_\_\_\_\_ (2002). 『과학혁명: 전통적 관점과 새로운 관점』. 서울: 아르케.
- \_\_\_\_\_ (2008). 『과학, 역사, 그리고 과학사』. 서울: 생각의나무.
- 김영한 (2006). 『21C 세계관과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용준 (2001). “사람, 종교, 과학”. 정진홍 외. 『종교와 과학』. 신정판. 서울: 아카넷. 239-265.
- 김용태 (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배경·내용 그리고 모델들』. 학지사.
- 김진홍 (2001). “종교의 과학 읽기”. 최재천 외.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궁리. 151-160.
- 문영빈 (2003). “신앙과 학문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문논총』. 10. 137-153.
- 박상진 (2005).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교육교회』.
- 성영곤 (2004). “과학과 종교의 역사적 관계”. 이중원·홍성욱·임종태 엮음. 『인문학으로 과학읽기』. 서울: 실천문학사. 113-151.
- 성인경 (2001). 『진리는 시퍼렇게 살아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손봉호 (1979).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재판. 서울: 성광문화사.
- 송정수 (2005). “과학기술문명의 좌표를 찾아서-‘통합’의 관점에서 본 21세기 과학기술 패러다임”. 이인식 외. 『새로운 인문주의자는 경계를 넘어라』. 서울: 고즈윈. 218-239.
- 신국원 (2003). “월터스토폴프의 실천지향적 기독교 철학”. 『신학지남』. 통권 274.
- 신기영 (2002).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 『통합연구』. 15(1). 74-92.
- 신재식·김윤성·장대익 (2009).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 양명수 (2001). “과학과 종교”. 최재천 외. 『과학 종교 윤리의 대화』. 서울: 궁리. 188-199.
- 양승훈 (1993). 『예수님이 주신되시는 새로운 대학』. 서울: CUP.
- 유종성 (1996). “생크림만이 아닌 빵도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빛과 소금』. 140.
- 이경직 (2003). “기독교 철학이란 무엇인가?”. 『신앙과 학문』. 8(1).
- 이학준 (2011).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 장대익 (2004). “철학이 생물학을 만날 때”. 이중원·홍성욱·임종태 엮음. 『인문학으로 과학읽기』. 서울: 실천문학사. 153-188.
- 전광식 (1995). “신앙과 학문의 통합: 인문과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통합연구』. 8(1). 10-37.
- \_\_\_\_\_ (1997). “최근의 학문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통합연구』. 10(3/4). 98-133.
- \_\_\_\_\_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CUP.
- \_\_\_\_\_ (2006). 『기독교 대안교육과 대안교육: 그 원리와 실제』. 성남: 독수리교육공동체.

전용훈 (2007). “과학적 몰이해 위에 쌓은 思想의 누각”. 최재천·주일우 편. 『지식의 통섭-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103-125.

조용훈 (2004).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 『통합연구』. 17(1). 11-36.

주만성 (2004). “학문의 세속화 문제와 기독교적 패러다임의 필요성”. 『통합연구』. 17(1). 41-77.

충신대학교 부속유치원 편 (2004). 『기독교 유아교육의 통합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최재천 (2007). “우물에 깊게 파려면 우선 넓게 파라”. 최재천·주일우 편. 『지식의 통섭-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299-308.

현우식 (2007). 『과학으로 기독교 새로 보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홍성욱 (2004). 『과학은 얼마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성욱 (2007). “21세기 한국의 자연과학과 인문학”. 최재천·주일우 편. 『지식의 통섭-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275-297.

稻垣良典 (1980). 『信仰과 理性』. 박영도 역. 서울: 서광사.

Allegretti, J. G. (1999). 『법조인의 소명』. 김동섭·전재중 공역. 서울: IVP.

Augustine, (1958). "Every good and truth Christian should understand that wherever he may find truth, it is his Lord's." in: *On Christian Doctrine*. New York: Liberal Arts Press.

Barbour, I. G. (2002).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이철우 역. 서울: 김영사.

Berry, W. (2006). 『삶은 기적이다』. 박경미 역. 녹색평론사.

Bloor, D. (2002). 『지식과 사회의 상』. 김경만 역. 서울: 한길사.

Brown, C. (1990). "Christianity & Western Thought." in: *The Ancient World to the Age of Enlightenment*. vol. 1. Leicester: Apollo.

Byrne, H. W. (2005). 『기독교 교육학 총론』. 신현광 역. 개정판. 서울: 민영사.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vol. 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Clowney, E. P. (2001).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Collingwood, G. (2006). 『자연이라는 개념』. 유원기 역. 서울: 이제이북스.

Collins, G. R. (1992).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전망』. 이종일 역. 서울: 솔로몬.

Crabb, L. J. (1996). 『기독교 상담 심리학』. 오현미 역. 제5판. 서울: 나침반.

Davidson, D. (1980). "The Material Mind". in: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DeJong, N. (1985). 『진리에 기초를 둔 교육』. 신천기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Derry, G. N. (2011). *What Science Is And How It Works*.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김윤택 역. 서울: 에코리브르.

Fagan, R. A. and DeVries, Raymond G., (1994). "The Practices of Sociology at Christian Liberal Arts Colleges and Universities". *American Sociologist*.

Feyerabend, P. (1987). 『방법에의 도전: 새로운 과학관과 인식론적 아나키즘』. 정병훈 역. 서울: 흔겨레.

Fodor, J. (1998). "Look!". in: *London Review of Books*. 20(21).

Fraser, D. A., and T. Campolo, (1996). 『신앙의 논으로 본 사회학』. 강대기 역. 서울: IVP.

Gadamer, H-G. (2000). 『진리와 방법 I - 철학적 해석학적 기본특징들』. 이길우외 공역. 서울: 문학동네.

Gaebelein, F. E. (1995). 『신본주의 교육』. 재판. 이창국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Gelwick, R. (1977). *The Way of Discove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llespie, T. W. (1996). “기독교 대학의 이념.” 『한국기독교연구논총』. 박종삼 역.
- Greene, A. E. (2003). 『알버트 그린박사의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현은자 외 2인 공역. 2판. 서울: CUP.
- Halverson, W. H. (1976). *A Concise Introduction to Philosophy*. (3rd. ed.). New York: Random House.
- Hindson, E. (1980). "Introduction." in: *Introduction to Puritan Theology: A Reader*. ed. Edward Hindso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Hoffecker, W. A. (1992). “기독교 신학의 출현: 니케야 공회”. W. Andrew Hoffecker. ed.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사상』. 정충하 역. 서울: 기독교지혜사. 119-129.
- Holmes, A. F. (1968). "The Philosophical Methodology for Gordon Clark". R. Nash, ed.. in: *The Philosophy of Gordon H. Clark*.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 \_\_\_\_\_ (1991).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서원모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_\_\_\_\_ (1994). 『기독교 세계관』.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 \_\_\_\_\_ (1999). "Integration Faith and Learning in a Christian Liberal Arts Institution," D. S. Dockery and D. P. Gushee, eds. in: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 Hummel, E. (1991). 『갈릴레오 사건』. 황영철 역. 서울: IVP.
- Jameson, D. (1998). "Cheerleading for Science." in: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15(1).
- Johnson, P. E. (2000). 『위기에 처한 이성』. 양성만 역. 서울: IVP.
- Kammer, C. (1981). "Vacation and the Professions". in: *The Annu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Ogletree, Thomas W., ed. 153-183
- Kuhn, T. (1977). "Objectivity, Value Judgement and Theory Choice." in: *The Essential T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yper, A. (1965).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Hendrik de Vries,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 Kuyper, A. (1993).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서문 강 역. 서울: 새순출판사.
- \_\_\_\_\_ (2003).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Ladyman, J. (2003). 『과학철학의 이해』. 박영태 역. 서울: 이학사.
- Lindberg, D. C. and R. Numbers, (Eds.) (1998). 『神과 자연: 기독교와 과학, 그 만남의 역사 (상권)』. 이정배·박우서 공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McGrath, A. (2007). 『도킨스의 신』. 김태완 역. 서울: SFC.
- McGrath A. and J. McGrath, (2008). 『도킨스의 망상: 만들어진 신이 외면한 진리』. 살림.
- Malik, C. H. (1990). 『대학의 위기: 기독교적 비판과 대안』. 신경숙 역. 재판. 성경읽기사.
- Markus, R. A. (1960). *Christian Faith and Greek Philosophy*. London: Darton, Longman & Todd.
- Marsden, G. M. (2000).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기독교적 학문 연구 @현대 학문 세계』. 조호연 역. 서울: IVP.
- Meier, P. D., F. B. Minirth, F. B. Ratcliff and D. E. Ratcliff, (2004). 『기독교 상담심리학 개론』. 전요섭 외 공역. 서울: CLC.
- Moffat, J. (1916). "Tertullian and Aristotl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17.
- Mouw, R. J. (2004). 『무례한 기독교』. 홍병룡 역. 서울: IVP.
- \_\_\_\_\_ (1999). 『왜곡된 진리』. 서울: CUP.
- Nash, R. R. (2003). *Faith and Reason*. 『신앙과 이성』. 이경직 역. 서울: 살림.
- Nisbett R. E. and L. D. Ross,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lmer, P. J. (2005).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Polanyi, M. (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London and Henley: Routledge and Kegan Paul.
- Polanyi, M. (2001). 『개인적 지식: 후기비판적 철학을 향하여』. 표재명·김봉미 공역. 아카넷.
- Ratzsch, D. (1990). 『과학철학: 자연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김해진 역. 대구: CUP.
- Ratzsch, D. (2000). *Science & Its Limits: The Natural Sciences in Christian Perspective*. Downers Grove, IL: IVP.
- Sider, R. D. (1978). "Credo Quia Absurdum?". *Classical World*. 73.
- Sire, J. W. (2002). 『지성의 제자도』. 정옥배 역. 서울: IVP.
- \_\_\_\_\_ (2003). 『홍길동, 대학에 가다』. 김성현 역. 서울: IVP.
- \_\_\_\_\_ (2007). 『코끼리 이름 짓기』. 홍병룡 역. 서울: IVP.
- Spier, J. M. (2001). 『기독교철학개론』. 문석호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Steinfels, P. (1993). "Universities Biased against Religion, Scholar Says". *New York Times*.
- Stott, J. R. W. (2002).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정옥배·한화룡 공역. 서울: IVP.
- Wallerstein, I. M. (1996). 『사회과학의 개방』. 이수훈 역. 당대.
- Walsh, J. and J. R. Middleton, (1989). 『그리스도인의 비전』. 서울: IVP.
- Ward, W. (1977). *The Bible in Counseling*. Chicago: Moody.
- Weisheipl, J. A. (1965). "Classification of the Sciences in Medieval Thought". *Mediaeval Studies*. 27.
- Wertheim, M. (1997). *Pythagoras's Trousers: God, Physics, and the Gender Wars*. 『피타고라스의 바지: 여성의 시각에서 본 과학의 사회사』. 최애리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 Wilson, E. O. (1975).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통섭: 지식의 대통합』. 최재천·장대익 공역. 사이언스북스.
-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MI: Eerdmans.
- Wolterstorff, N.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홍병룡 역. 서울: IVP.

## 보론

- 문영빈 (2003). "신앙과 학문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문논총』. 10. 137-153.
- 장동민 (2005). "복지선교: 21세기 개혁주의 선교의 새로운 방향모색". 『기독교신학저널』. 9. 131-154.
- 전요섭 (1999). "복음주의적 목회상담학 수립을 위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패러다임". 『한국개혁신학』. 5. 301-331.
- Allegretti, Joseph G. (1999). 『법조인의 소명』. 서울: IVP.
- \_\_\_\_\_ (1988). "Christ and the Code: The Dilemma of the Christian Lawyer's". *The Catholic Lawyer's*. 34. 131-141.
- Artholzer, R. (2005). 『심리치료와 성경적 상담』. 이혜란 역. 서울: CLP.
- Barbour, Ian G. (1999). *Religion in an Age of Science: The Gifford Lectures 1989-1991*. vol. 1.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Chap. 1
- \_\_\_\_\_ (2003).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이철우 역. 서울: 김영사. 서론 참조.

- Carter John D. and Naramore, Bruce, (1979).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71-116.
- Collins, Garry R. (1981).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Nashville: Abingdon. 23-47.
- Crabb, Lawrence J. (1993). 『성경적 상담학』. 정정숙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사. 1-62.
- \_\_\_\_\_ (2003). "Biblical Counseling". Gary R. Collins. (ed.) 『기독교 상담과 인간 성장』. 정석환 역. 파주: 한국학술정보. 226-231.
- Eck, Brian E. (1996). "Integration The Integrators: An Organizing Framework for a Multifaceted Process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 101-115.
- Farnsworth, Edward E. (1982). "The Conduct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0. 208-319.
- Niebuhr, H. Richard, (1977).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3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pykman, Gordon J. (1991). *Spectacles: Biblical Perspectives on Christian Scholarship*.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E.
- Stephen, Evans C. (1993), 『기독교심리학 입문: 지혜와 인간미를 지닌 심리학』. 이창국 역. 서울: 기독교문서회.
- Webber, Robert E. (1989).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